

1.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자연은 회복하고 인간은 적응한다

- 1920년대에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40만명이었던 반면 2010년에는 40만명에 불과하다.
-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정도는 지난 수십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난 40여 년간 기상 현상으로 인한 사망과 경제 피해는 80~90%가량 급감했다(2019년 학술지<지구환경 변화>)
-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느린속도로 이루어지기에 각 사회는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 오늘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과거에 비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태다.
- 오늘날 인류는 현재 인구수보다 25% 많은 100억명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 생산량증가는 기후 변화보다는 트랙터, 관개 시설 개선, 비료등의 요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다.

수십억명이 죽는다고?

- 지구 평균 기온이 4~5도 상승한다해도 비료나 관개시설, 농업의 기계화 같은 것들이 기후 변화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쳐 식량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다.
-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예측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술발전의 힘은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명백히 압도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진정한 요인

- 홍수, 가뭄, 허리케인, 토네이도의 빈도나 강도가 치솟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희박하다. 폭염과 강수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재난 피해 규모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 어떤 나라가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에 현대적인 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이다.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난같은 문제는 관리가능하며 인간 사회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회복했으며, 적응해 나갔다.

기후 변화 대책보다 발전이 더 절실한 사람들

- 아프리카의 콩고같은 저개발국가에서는 댐이 건설되고 수력발전소가 돌아가고, 농경지 관개 시설과 홍수 처리시스템이 갖춰지느냐가 기후 변화 대책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경제적 낙후성이 콩고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누가 위기를 부풀리는가

기후 종말은 없다

- 지난 30여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된 변화는 기후 양치기들의 활약 덕분에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다. 독일, 영국, 프랑스등 유럽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1970년대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 덕분이다. 기후 양치기들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기술의 힘으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아 내고 있다.